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반선수들의 감각추구 성향 분석

Sensation Seeking Analysis of Olympic Team's Athletes and General Athletes

안정덕*, 김정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경상대학교**

Jeong-Deok Ahn(ajdhwang@hanmail.net)*, Jeong-Wan Kim(kjw319@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과 일반선수들의 감각추구 성향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태능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261명(남:134, 여:127)의 선수들과 고등학교, 대학 및 실업팀에서 측정 당시 선수로서 활동하며, 국가대표 경력이 전혀 없는 252명(남:192, 여:60)의 일반 선수들이 피험자로 참여하였다.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선수들에 비해 스틸과 모험추구($p<.05$), 권태 민감성($p<.05$), 탈제지($p<.0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험추구 요인에서는 성별과 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에 비해 스틸과 모험추구($p<.01$) 및 탈제지($p<.001$)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남자 선수들의 경우 스틸 및 모험추구 성향이 가장 높는데 반해 여자 선수들은 경험 추구 성향이 가장 높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 중심어 : | 스틸 및 모험추구 | 경험추구 | 권태민감성 | 탈제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 sensation seeking profiles of the members in Korean Olympic team with those of common athletes. The 261 participants(male: 134, female: 127) as the members of Korean Olympic team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athletes, who were under training as the entrants for Athens 2004 Olympic Games. And 252 athletes who have never been national representatives, participated for the common athletes. We should find following result. First, Olympic team's athletes were lower than common athletes in TAS($p<.05$), BS($p<.05$), DIS($p<.001$). Second, The ES factor did not find any difference following sex and level. Third, Male athle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emale athletes in TAS($p<.01$) and DIS($p<.001$). Fourth, TAS was the highest factor in male athletes, otherwise BS was the highest factor in female athletes.

■ keyword : | Thrill and Adventure Seeking(TAS) | Experience Seeking(ES) | Boredom Susceptibility(BS) | Disinhibition(DIS) |

I. 서론

2008 북경 올림픽 성화는 온 지구촌을 스포츠 열기로

후끈거리게 하였다. 지금도 각국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이 선명하게 전해져 오는 듯하다.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자

접수번호 : #090304-002
접수일자 : 2009년 03월 04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23일
교신저자 : 김정원, e-mail : kjw319@hanmail.net

공심과 즐거움을 주었고, 선수들 개개인도 자신들이 느껴보고자 하는 감성적 코드에 가장 일치한 신성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북경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목적은 “Ten & Ten” 즉, 10개의 금메달 획득과 세계 10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금메달 13개를 획득하여 세계 7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국민들을 흥분시켰다. 월계관의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환호는 고대올림픽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최상의 갈채를 보내고 있다.

각종 미디어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그간의 노력과 투혼의 순간에 초점을 맞춘다. 선수들에게 있어 경쟁과 승패는 필할 수 없는 요소이고,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찬사는 그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빛나고 영예로우며, 이런 승리의 순간을 한번이라도 맞본 사람은 그 순간의 짜릿함을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을 앞 둔 시점에서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중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번 올림픽 참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선수들의 62% 정도가 메달을 획득하는 것, 23% 정도는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거나 좋은 Play를 펼치는 것, 8% 정도는 참가하여 경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다는 것은 기량 못지않게 정신력 관리와 훈련관리, 대인관리 및 몸관리 등에서도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1].

타고난 재능과 자기관리 못지않게 내면적인 감각추구 성향에서도 올림픽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은 일반선수들에 비해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수많은 관중앞에서 숨막히게 긴장되는 결정적 순간들을 큰 두려움 없이 즐기며 자신의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각은 심상훈련이나 정신훈련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 할 수 있겠으나, 본능적으로 남들 앞에서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강한 승부 근성과 도전 정신이 있다면 스포츠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감각추구 성향이란 신체적, 사회적, 법적 그리고 재정

적 위험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한 그리고 복잡하고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2-5]. Zuckerman[3][6]은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감각의 가치를 경험하거나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감각추구가 낮은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에 가치를 못 느끼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Zuckerman은 감각추구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감각추구척도(SSS: Sensation Seeking Scale) Form 1에서 Form 6, 그리고 ZKPQ(Zuckerman-Kuhman Personality Questionnaire) 등을 개발하였으나 문항수나 측정시간의 신뢰도 문제로 인해 SSS Form5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SSS Form5는 스틸과 모험추구(TAS: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경험추구(ES: Experience Seeking), 권태민감성(BS: Boredom Susceptibility), 탈제지(DIS: Disinhibition)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Zuckerman에 의해 개발된 감각추구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진로선택, 소비행동 선호도, 성적 행동, 약물복용,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청소년 비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틸이 있고 위험이 따르는 모험스포츠 참가자들과 안전한 스포츠에 참가하려는 사람들과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행동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8-19].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치된 결과나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모험 스포츠나 극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이나 일반 스포츠 참여자들보다 높은 수준의 모험과 스릴추구 성향(TAS)을 보인다. 둘째, 신체적 자기효능감에서도 모험스포츠 참여자들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셋째,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감각추구 성향을 나타낸다. 넷째, 경험추구(ES)나 권태민감성(BS) 및 탈제지(DIS) 영역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행글라이더, 번지점프, 암벽등반,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등과 같은 모험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볼링이나 골프와 같이 현저하게 안전한 레저스포츠나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등과 같은 일반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비

해 감각추구 하위영역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5][17-19]. 다섯째, 감각추구 성향은 심리학적 요인 외에도 생리학적 특성에도 관련이 있다. 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장기적 반응인 AEP(Average Evoked Potential) 증가 및 신경자극전달부의 효소인 MAO(Mono Amine Oxidase)수준과 관련되어 있고[5][20],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과도 유의하게 연결되어 있는[21]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모험스포츠 참가자가 아닌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등과 같은 일반 생활체육 참가자들이나 체육수업 수강자 또는 일반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가 동기 및 운동몰입과 감각추구 성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22-24]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시작에는 유진과 강필중[7]에 의해 제시된 한국형 감각추구척도의 타당도 검증이 크게 기여하였다. 유진과 강필중[7]은 Zukerman, Eysenck & Eysenck[25]에 의해 제시된 감각추구 척도 Form 5(SSS V: Sensation Seeking Scale) 40문항을 스포츠와 체육활동 상황에서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심리측정절차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4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의 4점 Likert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축구, 농구, 테니스, 등산 등과 같은 생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대학생 657명이었는데, 수정된 한국형 감각추구 척도로 스포츠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모험스포츠 참가자와 안전한 일반 스포츠 참가자,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을 판별할 수 있는 감각추구 척도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와 일반선수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수한 운동 선수들만의 독특한 감각추구 프로파일이 있는가? 하는데 있다. 올림픽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자면 더 높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정신과 굳건한 자기 효능감이 꼭 필요할진대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감각추구 성향이 유리할 듯 하다. 그러나 한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숨이 멈출 것 같고 근육이 끊어질 듯한

훈련의 고통을 인내하며 운동에만 몰입해야 하는 현실과 연결해 보면, 새로운 경험과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행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감각추구 성향이 낮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질 듯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금껏 그 어떤 연구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본 연구자는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이 일반선수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각추구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내 최정상급의 선수들의 감각추구 성향을 일반선수들과 비교 분석하고, 감각추구 프로파일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전반의 감각추구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현장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태능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261명(남:134, 여:127)의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국가대표 선수들은 유도, 태권도, 양궁, 탁구, 배드민턴, 수영, 육상, 핸드볼, 하키, 체조, 레슬링, 배구, 역도, 농구, 복싱, 펜싱, 사이클 등 단체 및 개인경기를 망라하여 총 17개 종목에서 목적적으로 표집되었다. 그리고 일반 선수들은 고등학교, 대학 및 실업팀에서 측정 당시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경력이 전혀 없는 252명(남:192, 여:60)의 선수들이 총 15개 종목에서 무선적으로 선정되었다. 피험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N = 513

	국가대표(n=261)		일반선수(n=252)	
	남(n=134)	여(n=127)	남(n=192)	여(n=60)
나이	24.4(3.8)	23.3(4.0)	20.1(2.1)	20.6(1.6)
소속	고교 : 2	고교 : 10	고교 : 55	고교 : 4
	대학 : 43	대학 : 27	대학 : 130	대학 : 50
	실업 : 73	실업 : 78	실업 : 7	실업 : 6
	프로 : 6	프로 : 9		
	기타 : 10	기타 : 3		
선수 경력	12.5년 (4.2)	11.4년 (4.2)	8.5년 (3.3)	8.9년 (2.0)
국가대표 경력	3.4년(3.1)	3.5년(2.9)	0	0

2. 측정 도구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반 선수들의 감각추구 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진과 강필중[7]이 Zukerman 등[25]에 의해 제시된 감각추구 척도를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수정하여 제시한 MSSS(Modified Sensation Seeking Scale)를 활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스릴과 모험추구(TAS: Thrill and Adventure Seeking) 7문항, 경험추구(ES: Experience Seeking) 9문항, 권태민감성(BS: Boredom Susceptibility) 6문항, 탈제지(DIS: Disinhibition) 6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이 4개의 하위요인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의 Likert로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여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유진과 강필중[7]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험추구 1문항과 권태민감성 2문항에서 Barbara(1989)의 적합판정 추정계수 .40에 약간 부족하였으나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적재치를 나타냈으며, 4개 하위요인 28문항에 대한 Cronbach'α 계수가 .67 ~ .83으로 나타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의 요인별 타당도는 varimax회전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factor analysis) 실시하였으며[표 2], 문항별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요인별 Eigenvalue(고유치) 값도 1.0 이상을 넘고 있다. Cronbach'α 값에 의한 내적 신뢰도는 TAS=.70, ES=.81, BS=.78, DIS=.83로 나타났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communality
	TAS (스릴/모험추구)	ES (경험추구)	BS (권태민감성)	DIS (탈제지)	
문항1	0.737				0.634
문항2	0.425				0.675
문항3	0.491				0.723
문항4	0.506				0.701
문항5	0.628				0.766
문항6	0.709				0.598
문항7	0.689				0.639
문항8		0.636			0.701
문항9		0.701			0.802
문항10		0.487			0.675
문항11		0.592			0.609
문항12		0.580			0.634
문항13		0.623			0.715
문항14		0.713			0.688
문항15		0.735			0.823
문항16		0.503			0.678
문항17			0.434		0.656
문항18			0.532		0.779
문항19			0.654		0.599
문항20			0.678		0.743
문항21			0.745		0.834
문항22			0.489		0.756
문항23				0.504	0.841
문항24				0.676	0.876
문항25				0.782	0.862
문항26				0.589	0.769
문항27				0.645	0.688
문항28				0.653	0.726
Eigenvalue	4.208	4.765	3.231	3.456	
Proportion(%)	18.54	16.57	19.41	17.88	72.40

3. 측정 절차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테네 올림픽 출전을 위해 태능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 기간이었던 2004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측정이 이루어 졌다. 선수들의 진실된 응답을 유도하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리사 태능선수촌장의 협조를 구해, 질문지의 첫 장인 안내문에 서명하고, 선수촌장 본인이 직접 각 팀의 감독에게 배부하여 훈련이 끝난 직후 조용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선수들은 팀 지도자와 통화하여 사전 허락을 득한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연구 보조원이 방문하여 측정하였고, 선수들의 응답 시간은 대략 10~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를 분석하던 중 일반 선수 피험자 군에서 18명의 선수들이

과거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자료 처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 9.1 버전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들의 경향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요인별 차이는 성(남,여) × 경기력(국가대표, 일반)에 따른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올림픽 대표선수들과 일반선수들의 감각추구 프로파일 특성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과 일반선수들의 감각추구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고, 수준 및 성별로 구분하여 [그림 1][그림 2]에,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선수를 통합한 프로파일을 [그림 3]에 각각 도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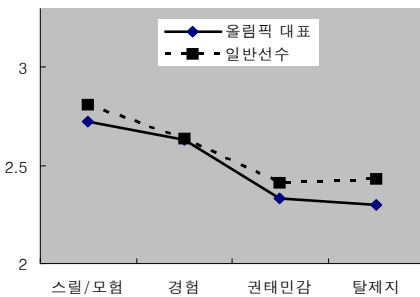


그림 1. 남자선수들의 감각추구 프로파일(국가대표:일반)

표 3.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N=513

감각추구 요인	남		여		남 (올림픽대표+일반선수)	여 (올림픽대표+일반선수)
	올림픽 대표선수 M(SD)	일반 선수 M(SD)	올림픽 대표선수 M(SD)	일반 선수 M(SD)		
스틸/모험추구 (TAS)	2.72(0.68)	2.81(0.71)	2.48(0.68)	2.70(0.49)	2.78(0.70)	2.55(0.63)
경험추구(ES)	2.63(0.47)	2.64(0.46)	2.56(0.46)	2.69(0.38)	2.64(0.47)	2.60(0.44)
권태민감성(BS)	2.33(0.47)	2.41(0.50)	2.27(0.51)	2.43(0.48)	2.38(0.49)	2.32(0.51)
탈제지(DIS)	2.30(0.50)	2.43(0.51)	2.03(0.42)	2.23(0.46)	2.38(0.51)	2.09(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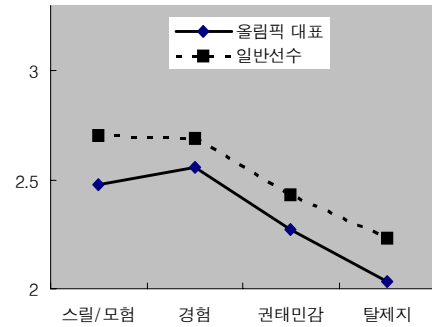


그림 2. 여자선수들의 감각추구 프로파일(국가대표: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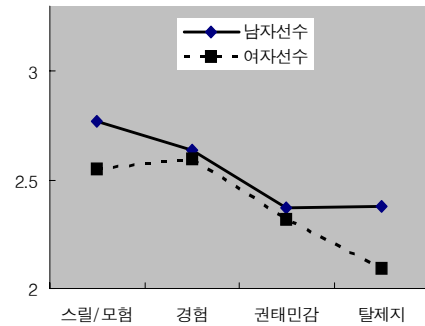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선수들의 감각추구 프로파일(남:여)

[그림 1-그림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여 모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보다 일반선수들이 감각추구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척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둘째, 선수들 모두 권태민감성과 탈제지 성향은 낮고 스틸 및 모험추구와 경험추구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태의 감각추구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감각추구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스틸 및 모험

추구 영역과 탈제지 영역에서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 보다 확연히 높게 형태의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2.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반선수들의 감각 추구 차이 분석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반선수들의 감각추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요인별로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스틸 및 모험추구 영역을 보면, 성별 ($p<.01$)과 수준($p<.05$)에 따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었고,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테스트에 의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남자선수들이 여자선수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스틸 및 모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일반선수들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험추구 영역에서는 성별과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 인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감각추구 요인별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인	Source	DF	SS	MS	F	P
스틸/모험추구	성별	1	3.4136	3.4136	7.49	0.0064**
	수준별	1	2.4121	2.4121	5.29	0.0218*
	성×수준	1	0.3977	0.3977	0.87	0.3507
	오차	510	232.51	0.4559		
	전체	513	240.90			
경험추구	성별	1	0.0063	0.0063	0.03	0.8623
	수준별	1	0.5007	0.5007	2.38	0.1235
	성×수준	1	0.3866	0.3866	1.84	0.1758
	오차	510	107.30	0.2104		
	전체	513	108.09			
권태민감성	성별	1	0.0544	0.0544	0.22	0.6403
	수준별	1	1.4596	1.4596	5.86	0.0158*
	성×수준	1	0.2056	0.2056	0.83	0.3639
	오차	510	126.99	0.2490		
	전체	513	128.85			
탈제지	성별	1	6.1972	6.1972	26.41	0.0001***
	수준별	1	2.8070	2.8070	11.96	0.0006***
	성×수준	1	0.1010	0.1010	0.43	0.5119
	오차	510	119.65	0.2346		
	전체	513	132.26			

* $p<.05$ ** $p<.01$ *** $p<.001$

권태민감성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준별로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반선수들이 올림픽 대표선수들보다 권태와 지루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제지 영역에서는 성별과 수준에 따라 상당히 유의한 수준($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일반선수들이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 보다 사회적 규범이나 제약을 벗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감각과 감성을 중요시하고 특이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인의 가장 뚜렷한 성향 중 하나이다. 스포츠는 반드시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스틸과 긴장감이 높고, 올림픽과 같이 중요한 경기일수록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과 각성의 변화 폭도 클 것이다. 스포츠 경기자체가 본질적으로 유발시키는 순간순간의 스틸과 긴장감을 두려움 없이 즐기는 사람들은 더욱 스포츠를 좋아하게 되고, 관중이 많은 큰 게임일수록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대표와 같은 훌륭한 엘리트 선수일수록 일반 선수들보다 스틸 넘치는 결정적 게임에 강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미묘한 스틸을 즐기는 성향이 더 높아 자연스레 감각추구 성향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선수들에 비해 감각추구 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이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관심이 간다. 특히 스틸과 모험추구, 권태 민감성과 탈제지 요인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일반선수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과 일반선수의 감각추구 성향에 대한 사전 연구 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연

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주의깊게 논의 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험스포츠 참가자들은 일반스포츠 참가자들에 비해 스틸과 모험추구, 경험추구, 권태민감성, 탈제지 요인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6][18][19]. 그리고 체육계 대학생들도 타 교과 대학생들 보다 높은 감각추구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7], 본질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모험적인 요소를 즐기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연구사례들은 스포츠에 참가 할 수록, 더 나아가 스틸있고 위험 있는 스포츠에 참가 할 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감각추구 성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감각추구 성향이 높다고 해서 도전적이고 개척자적인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성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음주운전[28], 알코올 중독[29], 인터넷 중독[30]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감각추구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흥적 집단 이탈적 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31] 있다. 즉 높은 감각추구는 사회적 위험행동과 이탈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 참가한 국가 대표급의 피험자들은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태능 선수촌에서 합숙 중이었고, 일반 선수들은 개개인의 소속 팀에서 훈련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태능 선수촌에서의 생활은 더욱 철저된 자기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들이 일반선수들에 비해 스틸/모험 추구, 권태민감성, 탈제지 요인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3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반선수들에 비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싫증을 잘 내고 짜릿한 자극을 추구하며, 도전적이고 스틸 있는 극한의 상황을 즐기려는 감각추구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감각추구 특성은 올림픽 메달 획득이

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힘든 훈련 스케줄을 견뎌내야 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규칙적이고 리듬 있게 보내야 하는 선수촌에서의 생활 생활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경험추구 성향은 음악, 미술, 여행, 예술가나 히피족 및 동성애자 집단과의 교류속에서 각성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선수들의 수준과 성별에 따라 유의할 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장영대[19]의 연구에서는 모험스포츠 참가자가 일반스포츠 참가자에 비해 경험추구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제시되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유진과 강필중[7]의 스포츠 참여자와 비참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과 스포츠 참여유무에 따라 경험추구 요인의 평균값이 거의 차이없이 제시되어(스포츠참여 남자:2.76, 비참여 남자:2.80, 스포츠참여 여자:2.81, 비참여 여자:2.79) 본 연구 결과와 완전 일치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보편적 성향으로 간주되며, 스포츠 선수들의 수준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전체를 통합하여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각추구 프로파일을 견지하고 있었다. 4개의 감각추구 하위요인 중 스틸과 모험추구 및 탈제지 요인에서는 상당히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험추구와 권태민감성 요인은 평균적으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 스틸과 모험추구 성향은 신체적 위험이 있더라도 새롭고 도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16][19][25][32] 본 연구결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탈제지 성향은 비관습적이거나 불법적일지라도 새롭고 흥분을 일으키는 탈사회적 행동을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티, 사교 음악, 섹스 등과 같은 사회활동에 대한 감각추구를 기술하고 있다. 소영호 [24]는 생활체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대

에서 50대까지의 성인 중 남성이 여성보다 스틸과 모험 추구($p < .05$ 수준), 탈제지($p < .01$)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경험추구와 권태민감성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완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더 추구하고 모험적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수들의 감각추구 성향 프로파일 상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올림픽 국가대표든 일반선수든 남자 선수들의 경우 스틸 및 모험 추구 성향이 가장 높는데 반해 여자 선수들은 경험 추구 성향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점은 소영호[24]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자선수들은 짜릿하고 위험있는 상황보다는 새로움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장의 감독과 코치 스템은 이러한 여자선수들의 감각추구 성향을 감안하여 선수관리에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국가대표선수는 최고의 경기력 발휘를 위해 어떠한 감각추구 성향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비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논의는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의 감각 추구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반선수들보다 감각추구 성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낮게 나타났다.

둘째, 스틸 및 모험추구와 탈제지 요인에서는 일반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남자선수들이 여자 선수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감각추구성향 프로파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자선수들의 경우 스틸과 모험추구 성향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선수들은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미래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제한점을 기초로 몇 가지 제언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을 즐기지 않는 일반인을 피험자로 포함하

여 3개 집단(일반인, 보통급의 운동선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더욱 뚜렷하고 명쾌하게 운동선수들의 감각추구 프로파일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감각추구 특성이 엘리트급의 우수한 선수들이 본질적으로 보유한 특성적(trait) 성향인지 아니면 선수촌에서의 엄격한 훈련관리 시스템에 의한 일시적 현상(state) 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대표 선발 전·후, 또는 태능 선수촌에서의 합숙훈련 전·후를 기점으로 한 반복측정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1] 안정덕, 송강영, "올림픽국가대표 선수와 일반선수의 자기관리 비교분석", 한국스포츠 심리 학회, 제19권, 제3호, pp.197-207, 2008.
- [2] M. Zuckerman, E. A. Kolin, L. Price, and I. Zoob,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8, pp.477-482, 1964.
- [3] M. Zuckerman, "Sensation seeking and risk taking," In C. E. Izard(Ed.). *Emotio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pp.163-197, 1979.
- [4] M. Zuckerman, "Sensation seeking and spo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4, No.3, pp.285-293, 1983.
- [5] M. Zuckerman, "Sensation seeking: A comparative approach to a human trai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7, pp.413-471, 1984.
- [6] M. Zuckerman,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7] 유진, 강필중, 한국형 감각추구척도의 타당도 검

- 증과 스포츠 참가 예측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제14권, 제2호, pp.249-264, 2003.
- [8] C. Cronin, "Sensation seeking among mountain cli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pp.653-654, 1991.
- [9] A. Ewert and S. Hollenhorst, "Testing the adventure model: Empirical support of a model of risk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21, No.2, pp.124-139, 1989.
- [10] M. G. I. Freixanet, "Personality profile of subjects engaged in high physical risk spo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pp.1087-1093, 1991.
- [11] J. Potgieter and F. Bisschoff, "Sensation seeking among Medium and Low risk sports," *Perceptual and Motor Skill*, 71, pp.1203-1206, 1990.
- [12] D. W. Robinson, "A descriptive model of enduring risk recreation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pp.52-63, 1992.
- [13] E. Slanger and K. Rudestam, "Motivation and disinhibition in high risk sports: Sensation seeking and Self-efficac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31, No.3, pp.355-375, 1991.
- [14] W. F. Straub, "Sensation seeking among high and low-risk male athlete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4, pp.246-253, 1982.
- [15] A. M. Wagner and D. Houlihan, "Sensation seeking trait anxiety in hang-glider pilots and golf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6, No.6, pp.975-977, 1994.
- [16] 정용각, "여가운동 참가자들의 각성추구 행동분석", *외대논총*, 제19집, 제2호, pp.399-412, 1999.
- [17] 정용각, "한국형 각성추구척도의 통계적 검증: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05-128, 2002.
- [18] 김희진, "모험 및 안전성향 스포츠 참가자들의 감각추구 성향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9] 장영대, "모험스포츠와 일반스포츠 참여에 따른 운동정서와 감각추구 성향의 관계", *미간행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20] L. Von Konrning and L. Oreland, "Personality trait and platelet monoamine oxidase in tobacco smokers," *Psychological Medicine*, 15, pp.327-334, 1985.
- [21] R. J. Daitzman and M. Zukerman, Disinhibition sensation seeking personality and gonadal hormon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 pp.103-110, 1980.
- [22] 신규리, 하지원, 원형중, "감각추구성이 스포츠 관여도와 스포츠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pp.905-917, 2005.
- [23] 김태은, "중학생의 체육수업형태에 따른 감각추구성향이 스트레스와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소영호, "생활체육 참가자의 참가정도와 감각추구성향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pp.21-36, 2007.
- [25] M. Zuckerman, S. B. G. Eysenck, and H. J. Eysenck, "Sensation Seeking in England and American : Cross cultural, age, and sex comparis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pp.139-149, 1978.
- [26] M. B. Barbars, "A premier of LISEL: Basic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model," *New York : springer-Verlag*, 1989.
- [27] 전병관, "감각추구척도(Sensation Seeking Scale)로 살펴본 체육계대학생과 비체육계대학생 간의 특성비교연구", *체육과학논총*, 제3호, pp.61-70, 1991.
- [28] 김병석, 이병일, "감각추구성향 및 도덕적 요인과 음주운전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0권 2호, pp.59-80, 2002.

- [29] 이병희, 김상훈, 박상학, “알코올 중독과 감각추구 성향”, 신경정신의학, 제35권, 제1호, pp.144-156, 1996.
- [30] 양돈규,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2호, pp.117-136, 2000.
- [31] 박영신, “감각추구성향과 또래관계 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2] I. L. Ball, D. Farnill, and J. F. Wangeman, “Sex and age difference in sensation seeking :Some national comparis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5, pp.257-265, 1984.

저 자 소 개

안 정 덕(Jeong-Deok Ahn)

정회원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과학영재학교 근무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 운동제어 및 학습

김 정 완(Jeong-Wan Kim)

정회원



- 1994년 12월 :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1981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심리, 운동제어 및 학습